

News

농협 대출 중단 '풍선효과' ... 보름간 다른 은행서 3.4조 늘었다

서울경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2조 2,05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농협 가계대출이 동기간 1,943억원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른 시중은행 대출이 3조 4,000억원 증가 대출 수요는 계속 있는데 한 곳에서 대출 중단하면 다른 곳에 몰리면서 풍선 효과 나타난 것... 주담대 등 전체 규모는 줄지 않아...

고승범, 내일 코로나대출 재연장 중지부... 중기·소상공인 지원 이어간다

머니S

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는 16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방안 발표 예정... 6대 금융협회장 만난 후 코로나19 금융지원책 재연장 여부 발표할 계획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 지원 중이라 언급... 다중 연체 채무자에게는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지원

여윌돈 있어도 전세대출 받아 그돈으로... 규제 가능성 나온 이유

머니투데이

추석 이후 발표할 가계대출 추가 보완책에 파격적인 전세대출 규제 넣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은행 전세대출 심사 까다롭게 할 수준 유력
5대 시중은행의 8월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약 14% 증가...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율 약 4.1% 보다 3.4배 높은 수준

美 워런 의원 "웰스파고 해체하라" Fed에 요구

한국경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 미국 4대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의 금융지주 회사 지위 박탈하라고 중앙은행에 요구
웰스파고 사업을 전통 은행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 고객이 보호받을 계획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DSR 더 조이고, 금리 벽 올리고... "보험사도 대출문 잠근다"

한국경제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지 못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 중... 보험업계에도 우려 가중... 추석 연휴 지나면서 대출 절벽 현상 더욱 심화 예정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 260조원 돌파... 세 달만에 5조 2,000억원 증가... 일부 보험사는 대출 중단 결정까지 내린 상태

펫보험에서 자전거보험까지... '미니 보험'이 뭐길래

한경비즈니스

미니보험 시장 주목 받고 있어... 보험료 소액이고 보험 가입기간이 단기 인 것이 특징, 필요한 시점에 간단한 가입 심사로 손쉽게 가입 가능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 기존 보험사들은 고객 끌기용 상품으로도 활용

하반기 서학개미의 승부수, 빅테크와 ETF

조선일보

서학개미들이 하반기 들어 실적 튼튼한 빅테크 기업과 안정적인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집계...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순매수 상위
불확실한 중소형 성장주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빅테크 주도주에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ETF는 종목들을 묶음으로 투자해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합쳤기 때문

금리인상에 역기저효과도... 증권사, 하반기 호황 힘들다

이데일리

한국기업평가, 하반기 이후 증권업 실적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역대급 호황의 기저효과와 금리상승 전망 등을 감안해 호실적의 지속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언급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전망... 위탁매매 의존도 높고 채권 운용규모가 크고 듀레이션이 길어 실적 저하 불가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항목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